

# 태산구급방 정본화 연구

박훈평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마루요양병원 한방 2과

## A Study of the *Taesangugeupbang* (*Emergency Prescriptions for Childbirth*) in the Context of Related Historical Medical Texts

Hun-Pyeong Park

Dept. of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 Shin University  
Korean Medicine Second Department, Maru Geriatric hospital

The *Taesangugeupbang* (*Emergency Prescriptions for Childbirth*) is a medical text written by Li-Chengong of China in the early 14th century. It incorporates forms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in use in the Chosun Dynasty and is quoted in the *Hyangyakjibsunbang* (*Compendium of Prescription from the Countryside*), the *Euibangyoochui*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and the *Taesanjibyo* (*Collection of Essentials for Childbirth*). The recent rediscovery of *Taesangugeupbang* manuscripts in Japan has enabled full-scale research of this text. This article is based on a study of these manuscripts and attempts to synthesize the text through the various documents. The article suggests that: (1) critical texts for understanding the *Taesangugeupbang* include the *Uijeoggo* (*A Review of Medical Books*), the *Euibangyoochui*, and the *Taesanjibyo*; (2)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Taesangugeupbang* had disappeared from use in Joseon by the late 15th century; (3) the *Taesangugeupbang* complemented the treatment regimen of other texts and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early Chosun ophthalmology; (4) The *Taesangugeupbang* is quoted in many Joseon's medical texts and is related to the author's mentor.

Key words : Korean medical history, *Taesangugeupbang* (*Emergency Prescriptions of Childbirth*), *Taesanjibyo* (*Collection of Essentials of Childbirth*), *Euibangyoochui*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Hyangyakjibsunbang* (*Compendium of Prescription from the Countryside*)

## I. 서론

『의방류취』 등의 조선 전기 의학서는 인용 의학 문헌을 별다른 재편집 없이 전제한다. 그런 까닭으로 이들 의서는 실전된 의서를 고증 정본화 함에 있어 중요한 일차 자료가 된다. 일본 에도시대에 多紀元堅에 의해 처음 逸失本の 복원이 시도 되었으며 당시 30여종의 의서에 대한 채집본이 만들어졌다. 국내에선 1990년대 후반부터 『의방류취』의 인용문을 중심으로 여러 실전 의서 복원 연구가 있었다. 『의방류

취』의 인용문을 중심으로 류정아와 장우창은 실전된 『傷寒論 註解』 元刊本の 가능성을 살폈으며,<sup>1)</sup> 안상우는 고려의서인 『備預百要方』<sup>2)</sup>과 『御醫撮要方』<sup>3)</sup> 일부를 복원하는 한편 『簡奇方』의 일부를 복원하여 여말선초의 향약 전승 경험을 담은 문헌으로 비정하는 성과를 내었다.<sup>4)</sup> 이가은은 『의방류취』와 『향약집성방』을 통하여 실전된 『保童秘要』를 고찰하였다.<sup>5)</sup>

『胎產救急方』은 『의방류취』 인용의서 중 하나로 인용서 목 153종의 책 중 62번째이다. 『태산구급방』은 조선 전기 의학서에 일부 원문이 남은 실전된 산부인과 전문서 정도로만 알려져 왔으나, 丹波元胤이 저술한 『醫籍考』(1819년 간)에 의해 처음 실존이 알려지고 서문 전문이 소개되었

접수 ▶ 2019년 04월 30일 수정 ▶ 2019년 05월 23일 채택 ▶ 2019년 05월 19일  
교신저자 ▶ 박훈평, 전남 화순군 춘양면 개천로 249 마루요양병원 진료과장  
Tel : 061-373-9100 E-mail : lillipute@hanmail.net

- 1) 류정아, 장우창. 「의방류취에 수록된 상한론주해에 대한 고찰」. 한국외사학회지. 2014;27(1):1-7.
- 2) 안상우. 「고려의서 비예백요방의 고증」. 서지학연구. 2001;22:325-350.
- 3) 안상우. 「의방류취의 서지학적 고찰」. 한국외사학회지. 1999;12(2):34-44.
- 4) 안상우. 「실전 의서 간기방의 복원 연구」. 서지학연구. 2008;40:269-293.
- 5) 이가은, 안상우. 「의방류취에 인용된 보동비요와 조선전기 소아의학」. 한국외사학회지. 2006;19(2):7-17.

다.6) 그러나 『醫籍考』에 소장처 등이 기록되지 않아, 근래 일본 內閣文庫에서 필사본이 재발견되기까지 책의 목차 등 자세한 내역이 알려지지 않았다. 발견된 필사본을 토대로 曹洪欣 등이 본문 교감을 하였으나,7) 현재까지 『태산구급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미진하다.

본고는 일본 내각문고에 소장중인 『태산구급방』 필사본을 토대로 기초 분석을 진행하고, 이어 여러 문헌을 통해 필사본을 교감 대조하여 정본화를 시도하였다.

일본 내각문고에 소장 중으로 청구 번호는 303函-235號이다. 반엽 10행 22자의 필사본 1책이다.8) 본문 중에 다른 설명이 없이 필사본이라 하면 이를 지칭하며 중국에서 교열의 대상본이다. 필사본의 첫 장에는 4개의 장서인이 있다(그림 1). “多紀氏藏書印”, “躋壽殿書籍記”, “醫學圖書”, “日本政府圖書”인데 이를 통해 多紀가 1765년 만들었던 躋壽館 소장 도서였다가, 1791년 에도막부의 官辦醫學館 도서로 이속되고, 메이지 연간에 최종적으로 內閣文庫에 소장됨을 알 수 있다.

## II. 본론

### 1. 연구대상

#### 1) 필사본 서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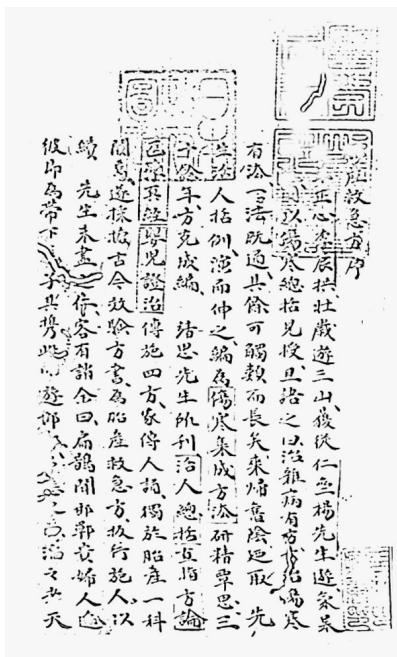


그림 1. 필사본의 서문

### 2) 저자 및 저술시기

필사본의 서문에 따르면 저자는 중국 송말원초의 醫家인 李辰拱이다. 그는 字가 正心, 延平 사람으로, 근방(三山)에 살던 명인인 楊士瀛으로 부터 의학을 배웠으며, 『傷寒集成方法』(失傳)과 『胎產救急方』을 저술했다.9) 『胎產救急方』 인용 문헌에 “家傳方”이나 “李氏家傳”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대대로 의업을 해온 집안 출신으로 추정된다.

저자가 楊士瀛의 제자인 점은 조선에서 이 책이 다수의 의서에 인용된 이유일 수 있다. 『태산구급방』의 저술 목적에 대하여 책의 「서문」에서 양사영이 태산전문서를 저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정도로 이 책은 양사영의 의학적 영향 아래 있다. 양사영의 『直指方』(1264년)은 1430년(세종 12)에 의학 취재과목으로, 세조 때엔 醫科 취재와 醫書 습득관의 고강과목이 되며, 이후 醫科의 과목이 되어 조선 후기까지 의관들의 교과서로 활용되었다. 양사영의 『直指脈』도 1430년에 의학 취재과목이 되었으며 1478년(성종 9)에는 의녀의 강서 교재로도 활용되었다. 두 책 다 조선에서 활자본으로 간행 보급되었다.10)

서문 말미에 “延祐 五年(1318)” 간기가 나오므로 필사본의 저본이 1318년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 필사본의 경우 丹波元胤의 『醫籍考』의 인용본과 동일한 책으로 보이는데, 『의적고』에 실린 『태산구급방』의 서문이 완전한

6) 丹波元胤. 『醫籍考』. 北京:學苑出版社. 2007:563.

7) 曹洪欣. 『海外回歸中醫善本古籍叢書 續 第10冊』.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10:508-540.

8) 中華書局, 中華善本 古籍庫 海外中醫古籍庫 DB(<http://books.ancientbooks.cn/banke/resource/1/index.htm>)에서 胎產救急方 摘要 참조. 그림 1, 2 이미지도 이 DB의 이미지를 활용했다. 이 필사본 외에도 내각문고에는 2종의 에도시대 필사본이 있다. 청구 번호는 303-227(昌平坂學問所 古 소장본), 303-233(醫學館 古 소장본), 303-238(醫學館 古 소장본) 日本 國立公文書館, National Archives of Japan Digital Archive(<https://www.digital.archives.go.jp>) 참조. 따라서 中華書局 摘要에 나온 청구기호는 오류로 보인다. 235가 아니라 233이 아니면 238이다.

9) 『胎產救急方』 「序文」 “延平正心李辰拱, 壯歲游三山, 獲從仁齋楊先生游. 氣味相投, 因以《傷寒總括》見授, - 중략 -, 編爲《傷寒集成方法》, 研精覃思, 三十餘年, 方克成編. 靖思先生所刊《活人總括》, 《直指方論》, 《醫學眞經》, 《嬰兒證治》 傳布四方, 獨于缺胎產一科缺焉. 采摭古今效驗方書爲《胎產救急方》, 板行施人, 以續先生未盡之仁. - 하략 -” 丹波元胤. op. cit. p. 563에 에도시대 당시 필사본의 서문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판독불가능한 글자 5개를 복원할 수 있다. 순서대로 而, 子, 應, 將, 老이다.

10)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사학회지. 2016;29(2):2-12.

형태인데다 필사본의 장서인 4개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 躋壽館이므로, 현존 필사본의 필사 시기는 躋壽館의 성립시기와 유사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정도로 추정된다.

### 3) 필사본의 체제와 인용문헌

저자 미상의 서문(그림 1) 다음에 바로 본문(그림 2)이 이어지며 본문은 전체 26개의 세부항목이다. 별도의 목차나 발문은 없다. 본문의 내용은 각 세부항목별로 해당 처방이 있고 처방별 주치, 약물 구성, 복용법이 나온다. 수록처방의 출전을 처방 앞에 병기한다. 금기에 관한 20-25번째의 6 항목만 이 형식에서 벗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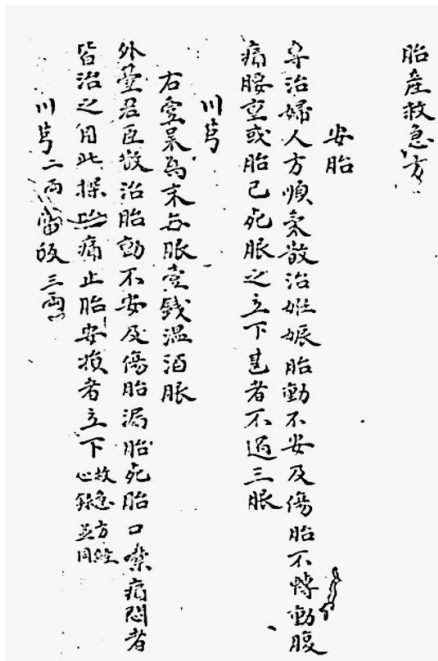


그림 2. 필사본의 본문 첫 면

『태산구급방』에서 인용된 문헌은 총 56종이다.<sup>11)</sup> 대개의 문헌이 1-2회 인용되지만 가장 많은 인용횟수는 『千金方』의 16회이다. 孫遜 著作의 경우 『千金方』 16회, 『孫眞人方』 3회, 『千金翼方』 2회로서 총 21회 인용되어 단일 의가로는 가장 많이 인용된다. 『태산구급방』에서 2회 인용되는

문헌은 『廣濟方』, 『產論』 등 11종이고, 1회 인용되는 문헌은 『得效方』, 『葛氏方』 등 32종이다. 이 중 일부만 현존하고 다수가 실전의서이기 때문에 『태산구급방』은 원대 및 그 이전 중국의 산과 의학 연구에 있어 주요한 자료가 된다. 『태산구급방』에서 자주 인용되는 문헌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태산구급방』의 주요 인용문헌

인용순위	의서명	인용횟수
①	千金方	16
②	產寶方	6
③ (3종)	集驗方, 大全方, 海上方	5
⑥ (8종)	外臺, 救急方, 孫眞人方, 崔氏方, 韓都事方, 陳氏方, 葉氏方, 子母秘錄	3

### 4) 『태산구급방』이 인용된 국내 문헌

『鄉藥集成方』은 김현전 직제학 俞孝通, 典醫 盧重禮, 副正 朴允德 등에 의해 1433년(세종 15) 6월 11일 완성된 의서이다.<sup>12)</sup> 『태산구급방』이 인용된 간본으로는 최초의 의서이다. 김중권에 따르면 『향약집성방』 전체의 인용문헌은 총 300여종으로 중국 수대부터 원대까지의 문헌이 대부분이다. 제 54-66권까지 부인과 내용만 국한하면 인용문헌은 총 100종이다. 『부인대전양방』(260회), 『성혜방』(121회), 『천금방』(54회), 『성제총록』(48회), 『產寶方』(35회), 『경험양방』(22회), 『득효방』(21회), 『子母秘錄』(15회) 만이 『태산구급방』에 비해 인용횟수가 많다.<sup>13)</sup> 그러나 『태산구급방』의 인용은 『향약집성방』에서 인용된 전체 12회 중 『권62·產後門』에만 5회 인용되는 등 전문서로서 특정 부분에 중점적으로 인용되므로 다른 의서와 단순하게 인용횟수의 양으로만 비교하기는 어렵다.

『醫方類聚』는 1445년(세종 27)에 365권으로 초고본이 완성되고, 세조조에 교정본이 나왔으며, 1477년(성종 8)에 야 초간본이 간행된 대역사의 결과물이다.<sup>14)</sup> 안상우는 『의방유취』가 단순히 인용서를 적당히 편제한 결과물이 아니라 교감과 분석에 의해 만들어졌고, 원문 손상 없이 독창적인 부분만을 실으려 했다고 지적했다.<sup>15)</sup>

11) 曹洪欣. op. cit. p. 540. 인용문헌을 54종으로 보았으나 논자는 추가로 『專治婦人方』과 『家傳方』(또는 『李氏家傳』)의 별도의 문헌으로 보았다.  
12)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6월 11일 기사. 『실록』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http://sillok.history.go.kr>)  
13) 김중권. 『향약집성방의 인용문헌 연구』. 서지학연구. 2006;35:198-199, 218-219. 표 17에서 『태산구급방』의 인용은 11회라 하였으나 실제는 12회이다.  
14) 안상우. 『의방유취 편찬과 조선전기 의서』. 한국사학회지. 2001;14(2):62-71.

『胎産集要』는 任元濬이 저술한 산과 전문서로 1430년(세종 12) 이전의 가까운 시점에 간행되었다. 현재 권6의 낙질만 현존하지만, 전체는 11책으로 추정된다.<sup>16)</sup> 현존본의 인용문헌은 38종으로 『의방류취』의 동일 내용부 인용문헌과 거의 일치하며 2종이 추가된 40종이다. 『胎産集要』는 인용의서의 재편집 과정 없이 거의 그대로 전재하는 특성이 있다.<sup>17)</sup>

『胎産要錄』은 1434년(세종 16)에 판전의감사 盧重禮에 의해 간행된 의서이다. 장경은에 의하면 인용문헌은 모두 26종으로, 『태산구급방』 인용은 3회 인용된다.<sup>18)</sup>

『村家救急方』은 1538년(중종 33)에 金正國이 찬한 의서로 窮村民들이 질병치료에 이용하도록 만든 구급방서이다. 박수진에 의하면 인용문헌은 모두 71종으로, 『태산구급방』 인용 횟수는 2회이다.<sup>19)</sup>

이창옥은 『향약집성방』, 『의방류취』, 『태산요록』 모두 婦人 관련 내용에서 송대 진자명의 『신편부인대전양방』<sup>20)</sup>을 가장 많이 인용한 점에서 『대전양방』이 이전 시대의 부인과를 집대성하고 그 성과를 3종 醫書가 수용한다고 평했다.<sup>21)</sup> 『태산집요』도 같은 성격의 책이므로, 이 4종의 인용서는 모두 『대전양방』의 영향을 받았다.<sup>22)23)</sup>

『태산구급방』 인용서 4종이 세종대에 저술되었으며 15세기에 간행되었다. 이후 시기는 1538년(중종 33) 『촌가구급방』에서만 인용되었다. 따라서 『태산구급방』은 16세기 중반 이전에 이르면 15세기 후반에 이미 조선에서 일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24)</sup> 『대전양방』 중심의 체계가 명대의학의

유입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 유효성도 상당히 줄었을 것이다. 홍란영은 명대의학을 수용한 『의림촬요』에서 『의학정전』 체제를 수용하여 『대전양방』 체제와는 다른 명대의 부인과 체제로 변화되었다 평하며, 이러한 흐름은 『동의보감』에도 연결되어진다고 보았다. 즉 홍은 의서에서 ‘婦人’이라는 항목이 15세기 여성의 모든 질병에서 16세기 調經과 産科로, 다시 『동의보감』 이후는 産科로만 축소되었다고 평했다.<sup>25)</sup>

## 2. 조선전기 의학서에서의 인용 분석

본 장에서는 필사본 『태산구급방』을 기본으로 하여<sup>26)</sup> 『태산구급방』을 인용한 여러 문헌을 통하여 대조 교감하였다. 필사본에는 있으나 인용된 사례가 없어서 대조가 불가능한 부분은 제외하였다. 항목의 순서는 필사본의 순서를 따랐다. 대조가 가능한 원문은 필사본의 판독 불가자를 복원하고 잘못 판독된 글자를 수정하였다. 이 판독불가자는 『의방류취』 인용문을 통해 복원되며 다른 의서 인용부를 통해 추가로 복원된 글자는 없다. 따라서 판독불가자 복원 관련 내용은 『의방류취』에만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의방류취』 인용부는 다른 의서에 비하여 분량이 많아 전체 인용부를 모두 수록하면 장황하므로<sup>27)</sup> 다른 의서의 인용부만 번역문과 원문을 소개하였다. 의서의 인용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따로 小考에서 논하였다.

15) 이상우. 『의방류취의 서지학적 고찰』. 한국역사학회지. 1999;12(2):30-31, 45.

16) 박훈평. 『새로 발견된 조선전기 의학서 태산집요 연구』. 장서각. 2016;36:22.

17) 박훈평. op. cit. p. 26.

18) 장경은. 『태산요록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28, 187-195.

19) 박수진, 김순희. 『촌가구급방의 인용문헌 연구』. 서지학연구. 2009;42:496, 501, 506.

20) 이하 원문에선 『대전양방』이라 간칭한다.

21) 이창옥. 『조선 전기의 산부인과학 발달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46-47, 70. 『대전양방』의 8강목은 『향약집성방』에서 10강목 『의방류취』는 28강목으로 더욱 확장하고 세분화한다. 홍란영. 『조선시대 신편부인대전양방의 서지학적 고찰』. 서지학연구. 2015;62:409-411.

22) 『대전양방』은 『태산집요』와 함께 조선 의관의 교과서로 활용되면서 조선 초중기에 산부인과 기초 이론을 제공하였다. 홍란영에 의하면 『대전양방』의 목차구성은 나열식으로 송 이전 시기의 구성을 답습한다. 하지만 8강목을 중심으로 특징에 맞게 소목들을 재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調經』 같은 항목에서 두드러진다. 『향약집성방』과 『의방류취』는 이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조선의 경험과 논리로 목차를 재구성한다. 홍란영. op. cit. p. 404-408, 412.

23) 양사영의 저작인 『직지방』을 보면 권26에 일반질환을 다루는 『婦人』과 태전 산후 질환을 다루는 『附子嗣』 항목이 있다. 『附子嗣』은 37페이지인데 醫論이 1/3 정도, 처방이 나머지 분량을 차지한다. 『태산구급방』의 서문을 보면 『태산구급방』이 양사영의 산과학전문서를 남기지 않음을 보증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醫論은 『직지방』을 전제로 하여 저술되었을 것이다. 『태산구급방』 내용은 胎前과 産後 금기를 제외하면 醫論 없이 처방이 주이다. 日本 早稲田大學 圖書館, Waseda University Library 藏書檢索(<https://archive.wul.waseda.ac.jp>) 참조.

24) 본문의 해당 항에서 논하지만 『촌가구급방』의 인용은 『향약집성방』의 인용을 재인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태산구급방』은 16세기가 되기 전에 조선에서 일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5) 강목을 축소하고, 일반화한다. 『동의보감 부인문』은 산부인과 관련 질환만 다루고, 여성이 걸리는 일반질환과 月經은 다루지 않는다. 홍란영. op. cit. p. 413-416. 『촌가구급방』이 16세기에 저술되긴 했지만 전문의사의 저술도 아니며, 산부인과 전문서도 아니므로 본 흐름과는 관련이 없다.

26) 曹洪欣. op. cit. p. 508-540.

27) 필사본과 번역문 원문 전체를 대조하여 제시하면 더욱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분석이 되겠지만 그럴 경우 의서 전체 분량을 다루게 되므로 본고 가 아닌 별도의 결과물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의방류취』

『의방류취』 인용은 26항목 중에 23항목에서 이루어졌다.<sup>28)</sup>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安胎」(一)<sup>29)</sup> : 『의방류취 권224·婦人門 19』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sup>30)</sup> 필사본의 내용과 다소 다르다. 필사본에 서만 『專治婦人方』, 『外臺』, 『千金方』, 『大千方』 인용방이 있다. 『肘後方』과 『產寶方』 사이에 『의방류취』에만 『王氏集驗方』 인용방이 있다. 필사본의 판독 불가자 3개를 복원하였다.<sup>31)</sup>

“《肘後方》 治胎動腰痛, 國搶心痛, 或漏血不止.”

○ 「傷胎」(二) : 『권224·婦人門 19』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sup>32)</sup> 필사본의 내용과 순서가 동일하다. 필사본의 판독 불가자 3개를 복원하였다.

“《新生新書》 治胎有胎動, 子死腹中”, “仍用葷爲新.”

○ 「漏胎」(三) : 『권224·婦人門 19』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sup>33)</sup> 필사본의 내용이 더 상세하며 『의방류취』 해당 내용이 모두 있다. 필사본의 판독 불가자 2개를 복원하였다.

“又方. 生地黃, 生薑等分和炒, 一爲末, 酒調服.”  
“《韓都事方》 當歸, 熟地黃等分, 水煎服之.”

○ 「弄產」(五) : 『권224·婦人門 19』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sup>34)</sup> 필사본 내용이 더 상세하고 『의방류취』 해당 내용이 모두 있다. 다만 『救急方』 인용내용 말미에서 “方見產寶”를 “方見安胎門”으로 바꾼 정도의 차이가 있다.

○ 「滑胎」(六) : 『권224·婦人門 19』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sup>35)</sup> 『韓都事方』 관련 내용만이 실려 있다. 필사본 해당 항목 중 1/5 정도에 불과하다.

○ 「催生」(七) : 『권229·婦人門 24』 「催生」 처음 부분에서 乳朱丸 내용까지 있고, 『권235·婦人門 30』에 小品方과

活人書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있다.<sup>36)</sup> 乳朱丸부터 小品方 사이, 華陀方, 葛氏方 인용부분은 필사본에만 있다. 필사본의 판독 불가자 7개를 복원하였다.

『의방류취 권229·婦人門 24』

“古今諸家方論, 皆以芎歸湯爲第一藥.” “家人問者暄雜, 先爲人知”

“真有神驗, 諸家崔生藥不如, 此方平穩而, 有奇效. 其方取馬尾大川當歸重一兩者, 大川芎一兩, 分爲三藥, 因立三名, 較之古方, 初無更易, 但用之有節次, 看方似若平淡, 用之其效如神, 具方于后.” “兒已轉, 眼如火出, 穀道挺逆, 此是正產之後, 宜服此, 以催生之.”

그런데 「催生」 처음부분에서 乳朱丸 내용까지의 해당본문은 필사본과 『의방류취』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문장이 아닌 글자의 차이만 존재한다. 필사본을 판독하는 과정 중에 빚어진 오류와 필사과정의 오류가 겹쳐진 결과로 추정된다.<sup>37)</sup>

○ 「難產」(八) : 『권229·婦人門 24』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sup>38)</sup> 필사본 내용의 1/3 정도에 불과하다.

○ 「橫生逆產」(九) : 현재 간행된 필사본의 교감에서는 별도의 항목이 아니지만, 내용으로 보나 『의방류취』의 항목 분류로 보나 별도로 분류되어야 한다. 『권229·婦人門 24』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sup>39)</sup> 필사본 내용이 더 상세하고 『의방류취』 해당 내용이 모두 있다. 필사본의 판독 불가자 1개를 통해 복원하였다.

“又方. 麝香<sup>40)</sup>水研服. - 중략 - 又方. 治產時但趨穀道挺亦方”

○ 「死胎」(十) : 『권229·婦人門 24』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sup>41)</sup> 필사본 내용과 일부가 겹치지만 다른 내용도 있다. 『管見大全良方』과 『婦人大全良方』 인용 내용은 『의방류취』에만 있다.

28) 이창욱. op. cit. p. 44. 李는 婦人門 인용은 7차례 조사했으나 이는 오류이다.

29) 필사본 등의 원문에는 번호가 없으나 편의상 본고에는 항목명 뒤에 순서대로 번호를 표기하였다.

30) 浙江省中医研究院. 『医方类聚 重校本 第10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461.

31) 아래에서 테두리 된 글자가 복원한 글자이다. 이하 항목에서 복원글자의 형식은 모두 같다.

32) 浙江省中医研究院. op. cit. p. 461-462.

33) 浙江省中医研究院. op. cit. p. 462.

34) 浙江省中医研究院. op. cit. p. 462-463.

35) 浙江省中医研究院. op. cit. p. 463.

36) 浙江省中医研究院. op. cit. p. 592-593, 764.

37) 예를 들어 위의 문장에서 “三藥”과 “三名”은 필사본에서 “二藥”과 “二名”으로 되어 명백한 오류이다.

38) 浙江省中医研究院. op. cit. p. 593.

39) 浙江省中医研究院. op. cit. p. 594.

40) 필사본의 같은 문장에선 “麝香” 앞에 판독불가능 글자 2개가 있는데 『의방류취』에선 같은 내용이지만 해당 글자가 없어서 알 수 없다.

41) 浙江省中医研究院. op. cit. p. 594.

○ 「鋪腸產」(十一) : 필사본에서는 “鎖腸產”으로 되어있으나 내용을 보면 출산 시 腸이 나옴을 수축시키는 처방 내용이므로 『의방류취』의 항목이름이 옳다. 『권229·婦人門 24』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sup>42)</sup> 필사본과 일부 글자만 다르고 내용이 같다. 필사본의 판독 불가자 2개를 복원하였다.

“家傳方。取麥麩內疎布袋中，置熱湯盆內<sup>○</sup>洗”  
 “又方。以新水入醋少許，攪勻，<sup>43)</sup>令人含水少許，噴產母面，時一<sup>○</sup>，迅則一縮，三噴已收盡矣。”

○ 「胞衣不下」(十二) : 『권229·婦人門 24』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sup>44)</sup> 필사본의 내용이 더 상세하다. 다만 『大全良方』 인용은 『의방류취』에만 있다.

○ 「子腸不收」(十三) : 『권235·婦人門 30』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sup>45)</sup> 필사본의 내용과 일부 글자만 빼고 동일하다. 필사본의 판독 불가자 1개를 복원하였다.

“又方。令產婦白上研蓖麻膏，塗頂心，密令以水噴其面，條然一忽，<sup>○</sup>自振動，腸已收矣。”

○ 「產門不閉」(十五) : 『권235·婦人門 30』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sup>46)</sup> 필사본 분량이 더 많고 상세하다.

○ 「破傷風」(十六) : 『권235·婦人門 30』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sup>47)</sup> 필사본의 내용과 일부 글자만 빼고 동일하다.

○ 「陰腫」(十七)<sup>48)</sup> : 『권235·婦人門 30』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sup>49)</sup> 필사본의 내용이 더 상세하다.

○ 「陰瘡」(十八) : 필사본에서는 앞의 항목과 합쳤으나 본문 형식으로 볼 때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권235·婦人門 30』의 인용내용<sup>50)</sup>이 필사본과 동일하다.

○ 「胎前避忌」, 「胎前食忌」, 「胎前藥忌」(二十一-二十二) : 『권227·婦人門 22』 인용내용과 순서가 필사본과 동일하다.<sup>51)</sup> 필사본의 판독 불가자 10개를 복원하였다.

「胎前避忌」 “古人入月則導<sup>○</sup>，此生子頭戴<sup>○</sup>惡而出。 <sup>○</sup>爲戴白生，其子必患胎<sup>○</sup>。”  
 「胎前食忌」 “食螺螄，令子鋪腸產。”，“多食冷水，冷酒<sup>52)</sup>，<sup>○</sup>生冷菜果，令子患胎寒。”  
 「胎前藥忌」 “雄黃雌黃與<sup>○</sup>黃” “躑躅野葛與<sup>○</sup>閻閻茹”，“槐子阜角<sup>○</sup><sup>53)</sup>疎”

○ 「產後避忌」, 「產後食忌」, 「產後藥忌」(二十三-二十五) : 『권238·婦人門33』 인용내용과 순서가 필사본과 동일하다.<sup>54)</sup> 필사본의 「胎後避忌」의 판독 불가자 21개를 복원하였다.

「產後避忌」 “古今例言：婦人有百二十日產<sup>○</sup>，<sup>○</sup>禮記具載，<sup>55)</sup>入月則<sup>○</sup>妻異寢。得子三月，方<sup>○</sup>見。其夜，<sup>○</sup>妻遂寢，令人多不知此。”，“重<sup>56)</sup>則爲崩中帶下，<sup>○</sup>雖不<sup>○</sup>，<sup>○</sup>則必成痼疾。反<sup>○</sup>產前忌九十日，產後已一日。”<sup>57)</sup>

○ 「產後救急方」(二十六) : 『권235·婦人門 30』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sup>58)</sup> 필사본의 내용과 다소 다르다. 필사본에만 『蘇內翰方』, 『沈寺正方』, 『許學士方』이 있는데, 『의방류취』에는 『許學士方』 순서에 대신 『療瘡方』과 『衛生簡易方』이 있다. 필사본의 판독 불가자 1개를 복원하였다.

“《千金方》 治產後小便不通。滑石二兩半，木通，車前子，葵子各二兩，上末，每二<sup>○</sup>漿水。”

42) 浙江省中医研究院. op. cit. p. 611.

43) 이 문장의 “攪勻”은 필사본에서는 “攪勿”로 되어있는데 오류이다.

44) 浙江省中医研究院. op. cit. p. 594.

45) 浙江省中医研究院. op. cit. p. 764-765.

46) 浙江省中医研究院. op. cit. p. 765.

47) 浙江省中医研究院. op. cit. p. 765.

48) 『태산구급방』 「陰腫」 “《海上方》 산후에 (오염된) 물에 손상됨을 치료하는데 음부가 조두 크기만큼 붓는 증상에 신헌이 있다. 모려 가루를 붙인다. 어떤 방에는 통탈목 뿌리를 갈아서 즙을 내어 골고루 붙인다. 《陳氏方》 고반과 오배자를 똑같이 나누어 가루를 낸다. 이를 취하여 도인탕에 담가서 겹질과 뾰족한 부위를 제거하고 갈아 굳혀서 골고루 붙인다. 《經心錄》 애엽 2냥·방풍 3냥·대극 2냥이다. 이를 잘라서 매 1냥씩을 물로 끓여서 뜨겁게 훈증하면서 따뜻하게 씻는다. 《葉氏方》 방풍·형개·사상자를 전탕하여 훈제를 한다. 《海上方》 治產後傷水，陰腫如斗，神驗。牡蠣粉傅。一方以通脫木根研汁調傅。《陳氏方》 枯礬，五倍子等分爲末。上取桃仁湯，浸去皮尖，研膏調傅。《經心錄》 艾葉二兩，防風三兩，大戟二兩。上剉，每一兩，水煎熱熏溫洗。《葉氏方》 防風，荊芥，蛇床子剉煎湯熏洗。”

49) 浙江省中医研究院. op. cit. p. 765.

50) 浙江省中医研究院. op. cit. p. 765. 종교에서 책제목 뒤의 “:” 기호가 모두 빠져 있다.

51) 浙江省中医研究院. op. cit. p. 542-543.

52) 『의방류취 권227·婦人門22』에는 “씻을 도(淘)”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맞지 않으며 필사본의 “술 주(酒)”가 더 적절하다.

53) 필사본에는 “沒”로 되어있는데 문맥 상 종교본 『의방류취』의 “沒”가 적절하다.

54) 浙江省中医研究院. op. cit. p. 858-859.

55) 종교본 『의방류취』에서는 “其”로 되어 있으나 『태산요록』에 의하여 “具”로 고쳤다.

56) 『의방류취』의 원문은 “等”인데 종교하면서 文意를 따라 “重”으로 추정했다. 『태산구급방』 필사본에선 “重”이다.

57) 필사본의 경우 “雖”을 “久”로, “反”을 “及”으로 판독했으나, 文意상 『의방류취』를 따랐다.

58) 浙江省中医研究院. op. cit. p. 765-766.

## 2) 『향약집성방』<sup>59)</sup>

『향약집성방』의 인용은 26항목 중에 10항목에서 이루어졌다.<sup>60)</sup>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安胎」(一) : 『권58·妊娠疾病門』 「妊娠胎動不安」에 “속단총백탕. 태동으로 허리와 배가 몹시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sup>61)</sup>라 하여 인용서 이름인 『集驗方』을 빼고 문장이 그대로 인용되었다.

○ 「傷胎」(二) : 『권58·妊娠疾病門』 「妊娠驚胎及僵仆」에 “《태산구급방》 교애탕. 임신 중에 갑자기 넘어져 태를 상하여 허리와 배가 아프거나, 혹은 태기가 가슴으로 치밀거나, 혹은 하혈이 그치지 않고, 혹은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은 증상을 치료한다.”<sup>62)</sup>

○ 「護胎」(四) : 『권59·妊娠疾病門』 「妊娠傷寒」에서 다른 책을 인용하면서 같이 『태산구급방』 관련 조문을 언급한다. “《왕씨집합방》 갈근즙 2되를 3번에 나누어 복용한다.(《태산구급방》에는 채배한 갈근을 써야지 야생 갈근을 사용하면 태아가 위태롭게 된다고 하였다.)”<sup>63)</sup> 그런데 『태산구급방』 원문을 보면 “家葛濃煎汁服湯者, 研生葛取汁, 勿用野葛根, 妨胎.”으로 『향약집성방』의 인용은 변형된 인용이다.

○ 「弄產」(五) : 『권62·產難門』 「產難子死腹中」에 “《태산구급방》 임신 8~9개월에 넘어져 손상되어 아이가 죽어 나오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sup>64)</sup>라 하여 “又方” 하나를 원문 그대로 인용하였다.

○ 「催生」(七) : 『권62·產難門』 「催生」에 관련조문이 인용되어 있다. “《태산구급방》 불수산. 해산할 때가 되어 양수가 터져 피가 나고 배에 여러 번 진통이 오면서 점점 요통이 극심해지고, 아이가 돌면서 산모의 눈앞에 불꽃이 보이고

항문이 빠져나갈 듯 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는 바로 정상 해산의 증후이니, 이때 이 불수산을 복용하여 해산을 빠르게 한다.”<sup>65)</sup> 『의방유취』에도 같은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sup>66)</sup>

○ 「胞衣不下」(十二) : 『권63·產後門』 「胞衣不下」에 관련조문이 2곳 인용되어 있다. “《태산구급방》 태반이 나오지 않고 피가 태반으로 들어가 덩어리가 되어 팽팽하게 붙어가고 명치 밑으로 모여 참을 수 없이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產寶方》 포의가 나오지 않음을 치료함에 쇠질구공이를 불에 벌겍게 달구어 술에 담갔다가 그 술을 마신다【《태산구급방》에는 저울추나 도끼를 벌겍게 달구어 술에 담갔다가 그 술을 마신다고 하였다.】.”<sup>67)</sup>

『권64·產後門』 「產後惡血衝心」에 관련 조문이 1곳 인용되어 있다. “《태산구급방》 오로가 다 나오지 않고 나쁜 피가 가슴으로 치미는 증상을 치료한다.”<sup>68)</sup>

○ 「產門不閉」(十五) : 『권65·產後門』 「玉門不閉」에 관련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태산구급방》 육로로 음문이 벌어져 닫히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사상자를 볶아 익혀서 배로 감싸서 그 위에 앉음도 또한 하탈을 치료한다. 증기로 뜨겁게 찜질함도 또한 좋다.”<sup>69)</sup>

○ 「破傷風」(十六) : 『권65·產後門』 「產後破傷風」에 관련 내용 인용이 있다. “《태산구급방》 나이 어린 부인이 처음 출산하여 상처로 물이 들어가면 흔히 이런 증후가 생기는데 사람을 죽게 만드는 위급한 증상이다.”<sup>70)</sup> 이 내용은 『의방유취 권235·婦人門 30』에도 그대로 인용되었다.<sup>71)</sup>

○ 「陰腫」(十七) : 『권56·女陰門』 「婦人陰腫」에 해당 내용이 있다. 필사본과 비교하면 “《海上方》” 등의 인용문헌이 제외되었고 “神驗”이 빠지는 등 일부 글자가 다르다.<sup>72)</sup> 그런데 『의방유취 권235·陰腫』의 인용내용<sup>73)</sup>이 필사본과

59) 본고에서 『향약집성방』 원문과 해석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고전 DB(<https://medicclassics.kr>)을 활용하였으나 일부 원문에 오류가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 DB(<http://www.nl.go.kr>)를 통해 원문을 대조하고, 해석이 없는 부분은 논자가 해석하였다.

60) 이창욱. op. cit. p. 23. 이창욱은 11처에서 인용되었다고 밝혔다. 논자의 조사에서도 11처 10항목에서 조사되었다.

61) 『향약집성방 권58·妊娠疾病門』 「妊娠胎動不安」續斷葱白湯. 治胎動, 腰腹痛甚.

62) 『향약집성방 권58·妊娠疾病門』 「妊娠驚胎及僵仆」 “《胎產救急方》 膠艾湯 治妊娠頓仆傷胎, 腰腹疼痛, 或胎上搶心, 或下血不止, 或短氣欲死.”

63) 『향약집성방 권59·妊娠疾病門』 「妊娠傷寒」 “《王氏集驗》 治妊娠傷寒熱病, 葛根汁 二升, 分三服.(《胎產救急》云 宜用家葛根, 勿用野葛根, 妨胎.)”

64) 『향약집성방 권62·產難門』 「產難子死腹中」 “《胎產救急》 妊娠八九個月, 攣撲傷損, 胎死不出.”

65) 『향약집성방 권62·產難門』 「催生」 “《胎產救急方》 佛手散. 治產時將至, 漿破血下, 腹中作陣數疼痛, 漸至腰痛極甚, 兒身已轉, 眼如火出, 穀道挺逆, 此是正產之候, 宜服此, 以催之.”

66) 필사본에서는 “眼如火出”를 “眼如出火”로 오기.

67) 『향약집성방 권63·產後門』 「胞衣不下」 “《胎產救急方》 治胞衣不下, 血入胞中成塊, 眼急搶人心脾, 疼不可忍.”, “《產寶方》 治胞衣不出, 鐵杵, 燒令赤, 投酒飲之【《胎產救急》 秤錘或斧頭, 燒赤, 淬酒服.】.”

68) 『향약집성방 권64·產後門』 「產後惡血衝心」 “《胎產救急方》 治惡露不盡, 血上衝心.”

69) 『향약집성방 권65·產後門』 「玉門不閉」 “《胎產救急方》 治產後, 子戶開而不閉. 蛇床子炒熟, 布裏坐其上, 亦治下脫. 蒸熱熨之亦可” 밑줄 친 부분은 필사본에 없다.

70) 『향약집성방 권65·產後門』 「產後破傷風」 “《胎產救急方》 治幼婦初產傷水, 多有此證, 殺人最急”

71) 필사본에서 “治幼婦初”를 “初婦初產”이라 함은 오류이다.

72) 『향약집성방 권56·女陰門』 「婦人陰腫」 “《胎產救急方》 治產後傷水, 陰腫如斗. 牡蠣粉傅. 一方通脫木根研碎調傅. 又方. 枯礬五倍子等分. 右爲末, 桃仁湯浸去皮尖, 研膏調傅. 又方. 防風, 荊芥蛇床子等分. 右剉煎湯熏洗.”

동일하다. 그러므로 일부 『향약집성방』의 인용은 원문을 변용하거나 축약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 「陰瘵」(十九) : 『권56·女陰門』 「婦人陰瘵」에 “《태산구급방》 음부의 가려움을 다스린다. 국화와 석류근피이다. 이를 함께 전탕하여 훈세한다. 또한 어떤 방에는 사상자·백반·석류근·오배자이다. 이를 함께 전탕하여 훈세한다. 어떤 방에는 낭아근 2냥, 사상자 3냥, 물 3되를 끓여서 10차례 솟아오르면 열세한다.”<sup>74)</sup>라는 인용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는 『의방유취』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 비교할 수 없고, 이 내용은 필사본에도 없다. 「安胎」의 사례처럼 필사본 저본과 인용서로 활용된 저본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 3) 그 외의 인용의서

『태산집요』<sup>75)</sup> 인용은 26항목 중에 3항목으로 다음과 같다.

○ 「難産」(八) : 『태산집요』에 관련 인용문이 4곳 존재한다. 이는 현존본인 권6이 “難産”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sup>76)</sup>

『태산집요 권6』 인용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태산구급방》 대마 뿌리를 물로 끓여서 먹는다. 또 다른 처방. 궁노의 활 【불살라 재로 만듦】을 가루로 만들어 술에다 1방촌비 분량을 섞는다 【《수역신방》 술에다 2돈을 섞는다.】. 또 다른 처방. 구리로 된 노아를 불살라 붉게 해서 식초 3홉 안에 두었다가 한꺼번에 복용한다. 《태산구급방》 弩牙<sup>77)</sup>를 불살라 붉어지면 술에 담가 복용한다. 모두 그 활을 쏘이 매우 빠름의 의미를 취함이다.”<sup>78)</sup> 그런데 필사

본에서는 “대마 뿌리”와 “노아”에 대한 내용만이 존재하고, “구리로 된 노아” 부분이 없다. 필사본의 다른 항목 내용을 보아도 처방 설명<sup>79)</sup>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태산집요』 편자의 按에 해당한다.<sup>80)</sup> 필사본에 없는 “구리로 된 노아” 부분은 앞서 「安胎」의 사례처럼 필사본과 다른 저본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외의 다른 인용 내용과 필사본은 거의 차이가 없다. 일부는 필사본의 글자 오류를 『태산집요』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sup>81)</sup>

○ 「橫生逆産」(九) : 『태산집요』에 관련 내용이 1곳 인용되었다. “운모산은 운모석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 1돈씩을 술에 타서 복용하는데, 이 처방은 사람이 여복(筭數)함을 낮게 하고 구제하는데 신효하다.”<sup>82)</sup>

○ 「死胎」(十) : 이 항목과 관련해 『태산집요』에 관련 내용이 1곳 인용되었다. “또 다른 처방. 죽은 태가 나오지 않아 산모의 얼굴이 푸르고, 손톱이 푸르고, 혀가 푸르고, 입에서 썩은 내가 남을 치료한다. 이를 복용하면 (죽은) 태가 내려오면서 산모가 산다. (또 다른 방) 패모와 붉은 질려를 가루 내어 방촌비 분량의 탕으로 마시면 효과가 있다. 또 다른 방. 패모를 가루 내어 술에 섞어 마신다.”<sup>83)</sup> 이 내용은 모두 필사본 중에 발견된다.

『태산요록』<sup>84)</sup> 인용은 26항목 중에 3항목으로 다음과 같다.

○ 「胎前避忌」(二十) : 『권상·胎産門』 「養胎謹慎法」에 한 문장이 인용되었다. “《태산구급방》 처음 임신한 뒤에는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약물을 복용해서는 안 되고, 성생활을 조심하지 않으면 임신된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

73) 浙江省中医研究院. 『医方类聚 重校本 第10册』.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6:765. 중교본 내용 중에 葉氏方은 책제목이므로 “:”을 넣어야 하는데 오류이다.

74) 『향약집성방 권56·女陰門』 「婦人陰瘵」. “《胎産救急方》 治陰瘵. 菊花, 石榴根皮. 右同煎湯薰洗. 又方蛇床子, 白礬, 石榴根, 五倍子. 右同煎湯薰洗之. 一方狼牙二兩, 蛇床子三兩, 水三升, 煮十沸熱洗.”

75) 본고에서 『태산집요』 원문은 개인소장본을 참조.

76) 박훈평. 「새로 발견된 조선전기 의학서 태산집요 연구」. 장서각. 2016:36:21.

77) 쇠뇌의 시위를 걸어 매는 곳. 구리 등으로 만들.

78) 『태산집요 권6』 「難産 上」 “《胎産救急方》 方大麻根水煎服. 又方. 弓弩鉉【燒灰】爲末, 酒調方寸匕 【《壽域神方》 酒調二錢】. 又方. 銅弩牙燒令赤, 投於醋三合內, 良久頓服. 《胎産救急方》 弩牙燒赤碎酒服. 皆取其發放快速之意.”

79) “그 활을 쏘이 매우 빠름의 의미를 취함이다.”

80) 『태산집요』가 단순히 관련 의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편저자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는 증거이다. 또한 『태산집요』와 『의방유취』의 인용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태산집요』가 현존본인 간본 『의방유취』가 아닌 그 이전 초고본 등에서 재편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81) 『태산집요 권6』 「難産 上」 “治難産, 及胎衣不下.”, “立産隨卽洗心. 遲則腸出”에서 필사본에서는 “立”과 “産”의 위치가 바뀌었고, “遲” 대신 “近”으로 되어있다.

82) 여복(筭數)의 뜻을 알 수 없어 해석이 불확실하다. 『태산집요 권6』 「難産 上」 “雲母散, 雲母石按成粉, 每一錢酒調下, 此方已救人筭數, 神效.” “筭”는 필사본의 관독에서는 “無”로 되어있다. 음가는 여. 파자는 竹/(吉+子). “數”는 필사본의 관독에서는 “數”로 되어있다. 음가는 북. 파자는 委+攴. 둘 다 신출한자로 정확한 뜻은 알 수 없다. 한국 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유니코드 한자 검색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newchar>)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활용했다.

83) 『태산집요 권6』 「難産 上」 “又方. 治死胎不出, 母面青, 指甲青, 舌青, 口作屎臭. 服此胎下母活. 貝母, 蒺藜炒爲末, 飲湯下方寸匕效. 又方. 貝母爲末酒服.”

84) 『태산요록』 원문과 해석은 장경은. op, cit. p. 93-102를 참조했다.



○ 「産後避忌」「産後食忌」(二十三-二十四) : 『권상·胎産門』 「産後食忌」와 「産後避忌」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 몇 글자를 제외하면 동일하다. 다만 두 항의 순서는 바뀌었다. 「産後避忌」의 경우 필사본의 판독 불가자가 21개나 되는데 『의방류취』를 통한 글자 판독을 보완할 수 있다.

『촌가구급방』 인용은 26항목은 2항목으로<sup>85)</sup> 다음과 같다.<sup>86)</sup>

○ 産門不閉(十五) : 「産後玉門不閉 九十二」에 인용 내용이 있다.<sup>87)</sup> 이 내용은 『향약집성방 권65·産後門』 「玉門不閉」의 내용과 동일하다. 「産門」이 「玉門」으로 소항목 이름이 바뀐 것도 같고, 필사본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도 동일하다.

○ 陰腫(十七) : 「陰腫痛 九十七」에 인용내용이 있다.<sup>88)</sup> 이 내용은 『향약집성방 권56·女陰門』 「婦人陰腫」의 내용과 동일하다. 필사본과 비교하여 “《海上方》” 등의 인용문헌이 제외되었고 “神驗”이 없음도 동일하다.

#### 4) 小考

『태산구급방』 필사본과 여러 의서의 『태산구급방』 인용부는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그러나 일부 차이가 발견되는데 전체 26항목 중에서 5항목으로 다음과 같다. 「安胎」(一)에서 『의방류취』와 필사본, 「難産」(八)에서 필사본과 『태산집요방』, 「死胎」(十)에서 필사본과 『의방류취』, 「胞衣不下」(十二)에서 필사본과 『의방류취』, 「陰瘡」(十八)에서 필사본과 『향약집성방』, 「産後救急方」(二十六)에서 『의방류취』와 필사본이다. 필사본이 해당 내용을 필사과정 중에 누락시켰는지, 아니면 둘의 저본이 다른지는 불분명하다. 「陰腫」(十七)을 보면 같은 내용을 『향약집성방』과 『의방류취』에서 인용하였는데 전자만 다른 사례가 보인다. 이는 일부 『향약집성방』의 인용이 원문을 변용시켜 축약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예는 「護胎」(四)에도 있다. 다른 의서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향약집성방』은 『의방류취』에 비해 수정 인용됨이 밝혀진 바 있다.<sup>89)</sup>

이상의 5항목을 제외하면 현존 필사본의 분량이 인용서들에 비해 내용이 대개 상세하다. 그러나 필사본 원본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 판독 과정에서 다수의 오자와 판독불가

능자가 발견된다. 이는 다른 의서에 인용된 부분의 경우 대조를 통해 상당부분 판독이 가능하다. 인용의서와의 비교대조를 통해 정본화가 가능한 이유이다.

조선 전기 의학서는 『태산구급방』 인용 항목은 다음과 같다(표 2). 『의방류취』 23항목, 『향약집성방』 10항목, 『태산집요』 3항목, 『태산요록』 3항목, 『촌가구급방』 2항목 인용되었다. 그런데 『태산집요』의 경우 현존본이 1책 낙질에 불과하여, 완질이였다면 『의방류취』 이상의 인용 항목수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표 2. 항목 별 다른 의서에서의 인용

항목	의방류취	향약집성방	태산집요	태산요록	촌가구급
1. 安胎	○	○	×	×	×
2. 傷胎	○	○	×	×	×
3. 漏胎	○	×	×	×	×
4. 護胎	×	○	×	×	×
5. 弄産	○	○	×	×	×
6. 滑胎	○	×	×	×	×
7. 催生	○	○	×	×	×
8. 難産	○	×	○	×	×
9. 橫生逆産	○	×	○	×	×
10. 死胎	○	×	○	×	×
11. 鋪腸産	○	×	×	×	×
12. 胞衣不下	○	○	×	×	×
13. 子腸不收	○	×	×	×	×
14. 陰逆下脫	×	×	×	×	×
15. 産門不閉	○	○	×	×	○
16. 破傷風	○	○	×	×	×
17. 陰腫	○	○	×	×	○
18. 陰瘡	○	×	×	×	×
19. 陰痒	×	○	×	×	×
20. 胎前避忌	○	×	×	○	×
21. 胎前食忌	○	×	×	×	×
22. 胎前藥忌	○	×	×	×	×
23. 産後避忌	○	×	×	○	×
24. 産後食忌	○	×	×	○	×
25. 産後藥忌	○	×	×	×	×
26. 産後救急方	○	×	×	×	×

『촌가구급방』의 인용은 『향약집성방』의 인용을 재인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향약집성방』은 원문을 생략하거나 약간의

85) 박수진, 김순희. op. cit. p. 501.

86) 『촌가구급방』 원문은 김정국 저, 성당제 역. 『촌가구급방』, 서울:아담앤달리, 2016:194-206을 참조.

87) 『촌가구급방』 「産後玉門不閉 九十二」 “《胎産救急方》 治産勞, 子戶開而不閉. 蛇床子炒熱, 布裏坐其上, 亦治下脫. 蒸熱熨之亦可”

88) 『촌가구급방』 「陰腫痛 九十七」 “《胎産救急方》 治産後傷水, 陰腫如斗. 牡蠣粉傅之.” 『향약집성방』과는 말미에 “之”만 다른데, 필사본이나 『의방류취』 인용문에도 “之”는 없다.

89) 『보동비요』 원문이 『향약집성방』에서 12처방이 인용되었는데, 이는 모두 『의방류취』와 중복된 경우라 비교가 가능하다. 이가은, 안상우, op. cit. p. 7-8.

변형시켜 인용하다. 그런데 『촌가구급방』의 인용문은 『향약집성방』의 인용문과 동일하다. 이는 재인용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

### Ⅲ. 결론

일본 내각문고에 소장중인 『태산구급방』 필사본을 토대로 기초 분석을 진행하고, 이어 여러 문헌을 통해 필사본을 교감 대조하여 정본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첫째, 『태산구급방』의 중요한 교감대조본은 『의적고』, 『의방유취』, 『태산집요』이다. 『의적고』는 서문, 나머지 두 책은 본문 내용에 대한 교감본이며, 이 중 『의방유취』는 가장 중요한 교감대조본이다.

둘째, 『태산구급방』은 15세기 후반에 이미 조선에서 일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촌가구급방』(1538년)의 인용은 『향약집성방』을 통한 재인용으로 추정된다.

셋째, 『태산구급방』은 치료처방을 보완하여 조선 전기 산과학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조선전기 각종 산부인과의서의 주요한 인용서였는데, 책 내용에 의론이 없고 처방과 금기뿐만 구성되었으며 부인의 일반질환은 다루지 않았다.

넷째, 이 책이 다수의 조선 의서에서 인용됨은 저자의 스승과 관련이 있다. 저자의 스승 楊士瀛의 『直指方』과 『直指脈』은 조선 전기의 의관 교재로 활용된 바 있다.

본고의 정본화 연구를 통하여 『태산구급방』이 조선 전기 의학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김정국 저, 성당제 역. 『촌가구급방』. 서울:아담앤달리. 2016.
2. 임원준. 『태산집요 권6』. 간행지미상(개인 소장).
3. 丹波元胤. 『医籍考』. 北京:學苑出版社. 2007.
4. 浙江省中医研究院. 『医方类聚 重校本 第10冊』.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6.
5. 曹洪欣. 『海外回歸中医善本古籍叢書 續 第10冊』. 北京:人

- 民衛生出版社. 2010.
6. 김중권. 「향약집성방의 인용문헌 연구」. 서지학연구. 2006; 35:198-199, 218-219.
7. 류정아, 장우창. 「의방유취에 수록된 상한론주해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4;27(1):1-7.
8. 박수진, 김순희. 「촌가구급방의 인용문헌 연구」. 서지학연구. 2009;42:496, 501, 506.
9. 박훈평. 「새로 발견된 조선전기 의학서 태산집요 연구」. 장서각. 2016;36:6-27.
10.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2-12.
11. 안상우. 「의방유취의 서지학적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999;12(2):30-31, 34-45.
12. 안상우. 「고려의서 비예백요방의 고증」. 서지학연구. 2001; 22:325-350.
13. 안상우. 「의방유취 편찬과 조선 전기 의서」. 한국의사학회지. 2001;14(2):62-71.
14. 안상우. 「실전의서 간기방의 복원연구」. 서지학연구. 2008; 40:269-293.
15. 이가은, 안상우. 「의방유취에 인용된 보통비요와 조선 전기 소아의학」. 한국의사학회지. 2006;19(2):7-17.
16. 이창욱. 「조선 전기의 산부인과학 발달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1-79.
17. 장경은. 「태산요록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28, 93-102, 187-195.
18. 홍란영. 「조선시대 신편부인대전양방의 서지학적 고찰」. 서지학연구. 2015;62:404-420.
19.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 DB(<http://www.nl.go.kr>)
20.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http://sillok.history.go.kr>)
21. 한국 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 유니코드 한자검색 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newchar>)
22.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 DB(<https://mediclassics.kr>)
23. 中華書局, 中華善本 古籍庫微博 海外中醫古籍庫 DB (<http://books.ancientbooks.cn/banke/resource/1/index.htm>)
24. 日本 國立公文書館, National Archives of Japan Digital Archive(<https://www.digital.archives.go.jp>)
25. 日本 早稻田大學 圖書館, Waseda University Library (<https://archive.wul.waseda.ac.jp>)